# 김민재와 만난 투헬 감독 '함박웃음'…포옹에 칭찬까지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3&aid=0011985860

구단 SNS에 만남 영상 공개[서울=뉴시스]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 공식 입단했다. 2023.7.20 (사진=바이에른 뮌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거함 바이에른 뮌헨의 수장인 토마스 투헬 감독이 '괴물 수비수' 김민재와 만남에서 활짝 웃었다.뮌헨은 20일(한국시간)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민재와 투헬 감독의 첫 만남이 담긴 약 15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에서 투헬 감독은 웃으며 김민재에게 다가와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인사했다.이어 김민재와 진한 포옹을 나눈 투헬 감독은 "(앞으로)정말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뮌헨 생활에 만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민재의 얼굴을 쓰다듬는 등 진한 애정을 표현도 아끼지 않았다. 김민재 역시 투헬 감독의 환대에 미소로 답했다.마인츠, 도르트문트(이상 독일), 파리생제르맹(PSG 프랑스), 첼시(잉글랜드) 등을 거친 투헬 감독은 지난 시즌 도중 뮌헨 지휘봉을 잡았다.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에도 수비진 재편에 나선 그는 2022~2023시즌 세리에A 최우수수비수인 김민재를 낙점하고 러브콜을 보냈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이상 잉글랜드) 등의 관심을 받았던 김민재는 투헬 감독과 영상 미팅이 뮌헨 이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쾰른=AP/뉴시스]토마스 투헬 뮌헨 감독. 2023.05.27.투헬 감독은 과거 박주호(은퇴), 구자철(제주) 등 한국 선수를 지도한 인연이 있다.투헬 감독은 앞서 독일 매체 란을 통해 "김민재는 키가 크고 빠르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선수"라며 칭찬한 바 있다.그러면서 "김민재는 (뤼카) 에르난데스(파리생제르맹)의 완벽한 대체자"라며 "그가 지금 뮌헨에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한편 김민재는 지난 19일 뮌헨과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 등번호는 3번이다.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적료는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인 5000만 유로(약 715억원)로 추정된다. 연봉은 1200만 유로(약 172억원) 수준이다.이적료 부문에선 아시아 선수 최고액이었던 손흥민(토트넘·3000만 유로)을 넘어 1위에 올랐다.

# [이사람] 드디어 입성… '레바뮌' 첫 코리안리거, 김민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36472?sid=102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게 돼며 한국인 최초 '레바뮌' 주전 선수가 됐다. /사진=바이에른 뮌헨 공식 홈페이지 캡처 유럽 최고 클럽으로 통하는 일명 '레바뮌'에 사상 첫 코리안리거가 탄생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그 주인공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19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민재의 입단 소식을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오는 2028년까지다. 등번호는 나폴리 시절과 동일한 3번이다. 레바뮌이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등에서 한 글자씩을 차용한 단어로 국내에서는 유럽 최고의 팀을 칭하는 대명사다. 이에 머니S는 올시즌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꼽히는 바이에른에서 뛰게 될 김민재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레바뮌'은 전통, 명성, 실력, 인기 등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자랑한다. 김민재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적료는 바이아웃(이적을 위한 최소 이적료) 금액인 5000만유로(약 710억원)다. 이는 한국 선수를 넘어 아시아 선수 통산 이적료 1위에 해당한다. 이로써 김민재는 종전 이 부문 최고액인 손흥민을 넘어섰다. 손흥민이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성할 당시 이적료는 3000만유로(약 426억원)였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료는 5000만 유로로 아시아 역대 최고, 구단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진=바이에른 뮌헨 공식 트위터 캡처 김민재는 구단 역사도 새로 썼다. 김민재의 이적료는 구단 역대 이적료 3위다. 독일 대표팀 공격수 르로이 사네가 4위, 프랑스 대표팀 수비수 다요트 우파메카노가 5위로 김민재보다 순위가 낮다.몸값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김민재 시장가치는 6000만유로(약 860억 원)다. 전 세계 축구선수들 중 61번째로 높다. 아시아 선수로는 단연 시장가치 1위다. 만 26세라는 어린 나이와 군 문제 해결이라는 이점을 지닌 김민재는 그만큼 높은 잠재력과 시장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나폴리 합류 당시 몸값은 2500만유로로 평가됐지만 불과 1년 만에 2.4배나 급등했다.   
  
  
  
김민재의 소속팀이 된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1연패를 달성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6회 우승을 차지한 세계 최강팀 중 하나다. /사진=바이에른 뮌헨 공식 홈페이지 캡처 김민재는 그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에른에서는 정우영이 한때 소속되긴 했지만 1군 무대에서 주전으로 자리잡진 못했다. 이밖에 바르셀로나에서는 과거 이승우와 백승호가 몸담기도 했지만 역시 성인 무대 데뷔전을 치르진 못했다.바이에른은 최근 리그 11연패를 달성하며 독일 최고의 명문 클럽임을 재차 입증했다.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바이에른에 입성한 김민재가 올시즌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된다.

# 독일 바이언 '김민재 영입'에 티빙이 웃는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85053?sid=105

독일 프로축구팀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와 5년 계약CJ ENM 국내 분데스리가 독점 중계로 티빙 주목돼  
  
  
  
[서울=뉴시스] 독일 프로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이 19일 김민재 영입 소식을 발표하자 티빙은 인스타그램에 "분데스리가 스트리밍은 오직 티빙"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티빙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축구선수 김민재가 독일 프로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는 소식에 티빙이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 관심사로 떠올랐다. 티빙, tvN 스포츠가 소속된 CJ ENM이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CJ ENM은 김민재 이적에 맞춰 박주호 전 선수를 해설위원으로 영입하는 등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분데스리가가 개막하는 다음 달부터 티빙이 이용자가 증가하는 '김민재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19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와 2028년 6월30일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 소속 구단으로 리그 우승 32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6회를 차지한 명문 팀이다. 국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초명문구단을 뜻하는 '레바뮌' 중 한 구단으로 꼽힌다.국내 축구 팬뿐만 아니라 뮌헨 현지 팬들도 김민재 뮌헨 이적을 환영했다. 김민재가 지난해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인 세리에A에서 SSC 나폴리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리그 우승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로로 김민재는 지난달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세리에A 사무국이 선정한 2022-2023 시즌 수비수 부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이러한 기대감 속에 CJ ENM 소속 방송사인 tvN 스포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은 김민재가 독일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 방송 시장에서 김민재 경기를 방송할 수 있는 곳은 CJ ENM 계열밖에 없기 때문이다.CJ ENM은 2021-2022 시즌부터 3년간 독일 분데스리가 국내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동안 분데스리가에 뛰었던 한국 선수는 마인츠의 이재성, 헤르타 베를린의 이동준(현 K리그 전북) 등에 그쳐 시청자 이목을 끌기 부족했다.하지만 손흥민에 버금가는 슈퍼스타인 김민재를 뮌헨이 영입하면서 tvN 스포츠와 티빙은 각각 시청률과 앱 이용자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다.19일 뮌헨이 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김민재 영입 소식을 알리자 티빙 SNS 관리자가 "김민재 선수 분데스리가에서의 활약은 티빙에서 만나요"라는 댓글을 단 것도 이 때문이다.한국시간으로 오전 1시께였는데도 티빙은 자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분데스리가 스트리밍은 오직 티빙"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담당자 이거 올리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복이 넝쿨째 들어왔다", "티빙으로 갈아타야겠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티빙의 김민재 경기 스트리밍에 기대감을 나타냈다.새 해설위원으로 '나은·건후 아빠' 박주호 영입…티빙, 스포츠로 MAU 증가세 이어갈까

#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독일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17800?sid=004

이적료 715억원…아시아 역대 최고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5년간 계약했다./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인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5년간 계약했다.바이에른 뮌헨은 19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로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뛴 김민재와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했다”라며 “김민재의 등번호는 3번”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민재가 뮌헨에서 받는 세후 연봉은 1200만유로(약 172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뮌헨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에 지급한 바이아웃(최소 이적료)은 5000만유로(약 71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민재는 이적료 부문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금액이었던 손흥민(토트넘·3000만유로)의 기록을 갈아치웠다.김민재는 2022-2023시즌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에서 뛰며 1990년 이후 33년 만에 나폴리의 세리에A 우승에 기여했다.김민재는 이날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FC 바이에른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라며 “여기에서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적 소감을 밝혔다.이어 김민재는 “구단과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며 “많은 경기에 나서는 것이 목표이고, 가능한 많은 우승을 달성하고 싶다”라고 했다.

#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입단...이적료 '아시아 역대 최고' 715억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044012?sid=104

[파이낸셜뉴스]   
  
  
  
김민재가 18일(현지시간)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 5월 7일 이탈리아 나폴리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홈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승리한 뒤 김민재가 동료 선수들과 함께 자축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김민재(26)가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 뮌헨 구단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웹사이트에서 김민재 이적을 위해 이탈리아 나폴리와 협상을 끝냈다면서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2028년까지 5년 동안 뛴다고 밝혔다. 등번호는 나폴리 시절과 같은 3번이다. 김민재 연봉은 1200만유로(약 172억원) 수준이다. 뮌헨은 자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뮌헨은 나폴리에서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 이적료로 5000만유로(약 715억원)를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료는 이전 아시아 최고 기록이었던 손흥민을 뛰어넘는다. 손흥민의 이적료는 3000만유로였다. 김민재 이적료가 아시아 1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아시아 선수 이적료 1~3위를 모두 한국 선수들이 차지하게 됐다. 3위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이강인으로 2200만유로 수준이다. 한편 김민재는 지난 3월 시장가치가 5000만유로로 평가됐다가 6월 6000만유로로 오른 바 있다. 지난해 6월 나폴리에 합류할 당시만 해도 2500만유로였지만 1년만에 몸 값이 2.4배 폭등했다.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5000만유로로 평가되고 있다. 김민재를 데려가기 위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PSG, 뮌헨 등이 각축전을 벌였지만 김민재는 뮌헨을 선택했다.

# '우승 다툴 클럽+출전 시간+직항 노선'…김민재가 B.뮌헨을 선택한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37186?sid=103

분데스리가 11시즌 연속 제패한 독일 절대 강호한국인 잘 아는 투헬 감독 러브콜도 크게 작용  
  
  
  
한국 국가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전통의 명가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공식 입단했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 홈페이지 캡처) 2023.7.19/뉴스1(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축구대표팀의 간판 수비수 김민재(27)가 마침내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 복수의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았던 김민재는 자신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지침)을 토대로 이에 가장 적합한 팀이라 판단한 바이에른 뮌헨을 새로운 둥지로 택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19일(한국시간) 김민재와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유로(약 17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김민재의 연봉은 스타들이 즐비한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도 상위권으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하지만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높은 연봉'은 아니었다. 유럽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재는 차기 행선지의 우선 순위로 '매 시즌 리그 우승을 다툴 수 있는 정상급 클럽'을 잡았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 입단하며 팀을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끌었다. 더불어 생애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다. 김민재는 빅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출전 경험에 대해 강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국가대표팀 수비수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전통의 명가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공식 입단했다. 뮌헨은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센터백 김민재와 2028년 6월30일까지 5년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 홈페이지 캡처) 2023.7.19/뉴스1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11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정상에 오를 정도로 독일 내에서는 적수가 없다. 또한 구단 최고의 성과로 꼽힐 수 있는 트레블(리그+컵대회+챔피언스리그)을 두 차례 달성하는 등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명문으로 꼽힌다. 김민재는 독일에서 매 시즌 우승과 함께 유럽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단순히 팀만 좋아서는 의미가 없다. 김민재는 충분한 출전 시간 확보를 원했다. 아무리 명문팀이어도 자신이 뛸 자리가 없다면 고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022-23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은 마티아스 데 리흐트(네덜란드), 다욧 우파메카노(프랑스)였다. 하지만 지난 시즌 도중에 부임한 토마스 투헬 감독은 수비진 변화를 원했다. 특히 투헬 감독은 몇 차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우파메카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에 투헬 감독은 김민재 측과 직접 통화를 통해 선수의 필요성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특히 과거 투헬 감독이 박주호와 구자철을 지도한 경험이 있어 한국 선수들에 대해 신뢰가 높다는 점도 김민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나아가 김민재가 원했던 것은 한국행 직항 노선이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한국을 오갈 때 직항 노선이 없어 이동에 애를 먹었다. 이에 국내서 펼쳐지는 A매치 때 많은 피로감을 느낀 바 있다. 다행히 바이에른 뮌헨의 연고지 뮌헨에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직항 노선이 있어 김민재가 앞으로 대표팀에 합류하는데 불편함을 덜게 됐다.

# “코리안 몬스터가 왔다”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과 공식 계약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23&aid=0003776836

이적료 710억원…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액수 2012년 16세이던 김민재는 U-17(17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하려고 경남 통영을 출발했다. 차량은 횟집을 운영하던 아버지 생선 트럭. 목적지인 파주NFC(축구 대표팀 트레이닝센터)까지 7시간 걸리는 길을 달리며 그는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11년이 흘러 이 소년은 아시아 축구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며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했다. 가슴엔 ‘Carpe diem(오늘을 즐겨라)’, 왼쪽 팔에는 ‘Can’t Stop to Dream, tempus fugit(꿈꾸길 멈추지 마라.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문신을 새긴 채.쑥스럽지만 기분 좋아요 -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둥지를 옮긴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18일(현지 시각) 구단 훈련장에서 스트레칭 바로 몸을 풀고 있다. 뮌헨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의 가정사, 신체조건, 별명(괴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를 반겼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 이적료는 약 710억원으로 알려졌다. /AFP 연합뉴스 뮌헨 구단은 19일(한국 시각) “김민재(27)와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적료는 5000만유로(약 710억원)로 알려졌다. 손흥민(31)이 2015년 독일 레버쿠젠에서 잉글랜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기록한 3000만유로를 훨씬 넘는 규모다. 2019년 나카지마 쇼야(29·일본)가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에서 카타르 알 두하일로 떠날 때 이적료 3500만유로도 능가했다. 김민재 연봉은 1200만유로(약 170억원) 정도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가 꿈꾸는 클럽이라 선택했다”며 “챔피언스리그와 분데스리가, 컵대회 정상에 올라 ‘트레블(3관왕)’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뮌헨 구단은 홈페이지에서 그의 별명 ‘괴물(Korean Monster)’을 언급하며 환영했다.그래픽=양진경 김민재는 통영이 고향이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식탁이 6개뿐인 작은 횟집(통영바다막썰어횟집)을 운영했다. 횟집에 딸린 좁은 방에서 온 식구가 함께 지냈다. 수원공고로 ‘축구 유학’을 떠나 전국고교축구선수권 우승을 이끄는 등 소질을 드러냈고, 2017년 K리그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고 2년 연속 리그 우승에 기여한 뒤 2019년 중국 베이징 궈안으로 떠났다. 2021-2022시즌을 앞두고 튀르키예 명문 페네르바체로 옮기며 유럽 무대에 선을 보였고, 튀르키예 리그 베스트11에 뽑히는 등 활약이 두드러지자 다음 시즌 이탈리아 나폴리가 이적료 1950만유로에 데려갔다. 나폴리에서 김민재는 유럽 최정상급 중앙 수비수(센터백)로 성장했고,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면서 리그 최고 수비수로 선정됐다.애정 넘치는 환영식 - 김민재가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왼쪽) 바이에른 뮌헨 CEO와 계약 기간을 적은 유니폼을 들고 있다(왼쪽 사진). 구단은 그의 딸 '주아' 이름을 새긴 유니폼도 선물했다. /바이에른 뮌헨 홈페이지·김민재 아내 안지민씨 인스타그램 새 시즌을 앞두고 유럽 ‘빅(Big) 클럽’들은 김민재를 영입 대상에 올렸고,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경합을 벌인 끝에 뮌헨이 최종 승자가 됐다. 2년 전 베이징에서 페네르바체로 갈 때 이적료는 350만유로였는데 이젠 그 14배가 넘는 5000만유로가 그의 몸값이다.뮌헨은 김민재가 지난 6일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자 구단 의무팀을 보내 국내 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민재의 딸 주아(2)양 이름이 들어간 유아용 유니폼과 마스코트 인형도 선물했다. 등번호 3번을 달게 된 김민재는 19일 훈련장을 찾았고 “킴(KIM)”을 연호하는 팬들에게 사인해주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뮌헨은 현재 토마스 투헬(50·독일)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잉글랜드 첼시를 이끌고 2021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일궈낸 명장. 2009년부터 5년간 독일 마인츠 사령탑으로 있으면서 박주호(36·은퇴)와 구자철(34·제주)을 제자로 데리고 있었다.☞FC 바이에른 뮌헨1900년 창단한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클럽. 유럽 축구 클럽 랭킹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 이어 2위이며, 레알 마드리드·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전통 구단으로 꼽힌다. 최근 분데스리가 11연패(連霸)를 달성했고, 지금까지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6번 차지했다.

# 김민재, 뮌헨과 5년 계약…이적료 715억원 '아시아 역대 최고'(종합2보)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1&aid=0014076274

네덜란드 '국대 수비수' 더리흐트와 '센터백 조합' 예정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17일 출국→19일 공식발표 직후 팀훈련 합류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입단 사진[바이에른 뮌헨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철기둥' 김민재(26)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 뮌헨 구단은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나폴리(이탈리아)와 김민재의 이적 협상을 끝냈다.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했다.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다. 이로써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형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은 김민재는 '독일 명가' 뮌헨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의 2막을 열게 됐다. 뮌헨은 김민재와의 자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폴리에 지급한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은 5천만 유로(약 71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1천200만 유로(약 172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김민재는 이적료 부문에서 역대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선수 최고 금액이었던 손흥민(토트넘·3천만 유로)을 뛰어넘어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이강인(2천200만 유로)이 한국인 역대 최고 이적료 3위다.[그래픽] 아시아 축구선수 이적료·시장가치 순위(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우승 파티' 나폴리 팬들과 환호하는 김민재(나폴리 EPA·ANSA=연합뉴스)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의 김민재가 7일(현지시간) 나폴리의 디에고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세리에A 34라운드 피오렌티나와 홈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고 팬들과 환호하고 있다. 지난 5일 나폴리는 1990년 이후로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다. 2023.05.08 jason3669@yna.co.kr 김민재는 최근 PSG로 이적한 수비수 뤼카 에르난데스(27)의 공백을 채우면서 지난 시즌 뮌헨에 합류한 네덜란드 국가대표 센터백 마테이스 더리흐트(23)와 중앙 수비를 담당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뮌헨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선수는 김민재에 앞서 정우영(슈투트가르트)과 이현주(베헨 비스바덴)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주전급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정우영은 뮌헨 1군에서 2경기만 소화한 뒤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했고, 이현주는 뮌헨 B팀에서만 뛰다가 비스바덴으로 임대돼 사실상 '주전 선수급'으로 뮌헨 유니폼을 입은 것은 김민재가 처음이다.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뒤 '핵심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탠 김민재는 2022-2023시즌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로 뽑히며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 발돋움했다.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 3월 김민재의 시장가치를 5천만 유로로 평가했다가 지난 6월 6천만 유로(약 860억원)로 상향했다. 지난해 6월 나폴리 합류 당시 2천500만 유로였던 그의 가치는 2.4배나 증가하며 손흥민(5천만 유로)을 뛰어넘어 유럽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이상 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뮌헨 등이 '김민재 쟁탈전'을 펼쳤고, 결국 김민재는 '독일 명가' 뮌헨을 새 둥지로 최종 선택했다.공 걷어내는 김민재(울산=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오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 축구 대표팀의 평가전에서 김민재가 공을 걷어내고 있다. 2023.3.24 nowwego@yna.co.kr뮌헨 구단은 김민재 영입에 큰 공을 들였다. 지난달 15일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김민재가 3주 훈련을 마치고 지난 6일 퇴소했는데, 뮌헨 구단은 퇴소일에 맞춰 독일에서 의무팀을 한국으로 직접 파견해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했다. 보통 선수들이 입단 계약서 서명 전에 구단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뮌헨은 김민재의 편의를 위해 직접 의무팀을 파견하는 수고를 감수했다. 뮌헨은 김민재의 이적을 공식 발표하면서 메디컬 테스트에 대한 '뒷얘기'를 담은 비디오 클립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는 뮌헨 의무팀이 독일을 떠나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과 함께 국내 병원에서 김민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번호 3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민재도 메디컬 테스트 동안 의무팀과 간단한 독일어 단어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고, 뮌헨 구단은 김민재에게 유니폼과 인형을 선물했다. 김민재는 독일어로 "뮌헨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입니다"라는 인사말도 남겼다. 국내에서 입단을 앞둔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 김민재는 지난 17일 조용히 출국해 뮌헨에 도착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뮌헨 훈련장에서 새로운 팀 동료와 인사하는 김민재 [뮌헨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민재는 입단식을 마친 뒤 곧바로 팀 훈련에 합류했다. 뮌헨 구단도 트위터에 김민재가 훈련을 시작하는 모습과 함께 트레이닝장에서 새로운 팀 동료와 차례로 인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한편, 한국 선수가 독일 무대에 진출한 것은 1978년 12월 '차붐' 차범근이 다름슈타트에 입단한 게 시초다. 박종원, 박상인, 김주성이 1980∼90년대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고, 이후 차두리, 안정환, 이영표, 손흥민, 구자철, 지동원, 박주호, 홍정호, 류승우, 김진수, 정우영, 권창훈, 황희찬, 이재성 등이 진출했다. 수비수로 독일 무대를 가장 먼저 밟은 선수는 2001년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한 수비수 심재원이었다. 다만 당시 프랑크푸르트는 2부리그였다. 이후 이영표, 박주호, 홍정호, 김진수 등이 수비수로 분데스리가 무대를 뛰었고, 김민재가 '한국인 분데스리가' 수비수 계보를 잇게 됐다.horn90@yna.co.kr

# 김민재, 뮌헨과 5년 계약…이적료 715억 원 '아시아 역대 최고'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55&aid=0001074447

'괴물 수비수' 김민재(26)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뮌헨 구단은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나폴리(이탈리아)와 김민재의 이적 협상을 끝냈다.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입니다.이로써 올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형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은 김민재는 '독일 명가' 뮌헨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의 2막을 열게 됐습니다.뮌헨은 김민재와의 자세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나폴리에 지급한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은 5천만 유로(약 71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연봉은 1천200만 유로(약 172억 원) 수준입니다.이에 따라 김민재는 이적료 부문에서 역대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선수 최고 금액이었던 손흥민(토트넘·3천만 유로)을 뛰어넘어 이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최근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이강인(2천200만 유로)이 한국인 역대 최고 이적료 3위입니다.김민재는 최근 PSG로 이적한 수비수 뤼카 에르난데스(27)의 공백을 채우면서 지난 시즌 뮌헨에 합류한 네덜란드 국가대표 센터백 마테이스 더리흐트(23)와 중앙 수비를 담당할 전망입니다.지금까지 뮌헨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선수는 김민재에 앞서 정우영(슈투트가르트)과 이현주(베헨 비스바덴) 등이 있었지만 이들은 주전급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정우영은 뮌헨 1군에서 2경기만 소화한 뒤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했고, 이현주는 뮌헨 B팀에서만 뛰다가 비스바덴으로 임대돼 사실상 '주전 선수급'으로 뮌헨 유니폼을 입은 것은 김민재가 처음입니다.지난해 여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뒤 '핵심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탠 김민재는 2022-2023시즌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로 뽑히며 '월드 클래스 수비수'로 발돋움했습니다.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 3월 김민재의 시장가치를 5천만 유로로 평가했다가 지난 6월 6천만 유로(약 860억 원)로 상향했습니다.지난해 6월 나폴리 합류 당시 2천500만 유로였던 그의 가치는 2.4배나 증가하며 손흥민(5천만 유로)을 뛰어넘어 유럽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이상 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뮌헨 등이 '김민재 쟁탈전'을 펼쳤고, 결국 김민재는 '독일 명가' 뮌헨을 새 둥지로 최종 선택했습니다.한국 선수가 독일 무대에 진출한 것은 1978년 12월 '차붐' 차범근이 다름슈타트에 입단한 게 시초입니다.박종원, 박상인, 김주성이 1980∼90년대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고, 이후 차두리, 안정환, 이영표, 손흥민, 구자철, 지동원, 박주호, 홍정호, 류승우, 김진수, 정우영, 권창훈, 황희찬.이재성 등이 진출했습니다.수비수로 독일 무대를 가장 먼저 밟은 선수는 2001년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한 수비수 심재원이었습니다.다만 당시 프랑크푸르트는 2부리그였습니다.이후 이영표, 박주호, 홍정호, 김진수 등이 수비수로 분데스리가 무대를 뛰었고, 김민재가 '한국인 분데스리가' 수비수 계보를 잇게 됐습니다.(사진=바이에른 뮌헨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연합뉴스)

# 뮌헨에 한국산 ‘철기둥’… 김민재 “우승 많이 할 것”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5&aid=0001624916

“2028년까지 계약” 공식 발표“태클·높이·패스 완성형 센터백”이적료 5000만 유로, 亞 최고이달 말 프리시즌 日투어 합류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자신의 이름과 계약 기간이 적힌 팀 유니폼을 들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홈페이지 캡처유럽이 주목하는 최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한 ‘철기둥’ 김민재(27)가 마침내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다.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를 경신하며 독일 무대를 밟은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A에 이어 다시 한 번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남겼다.뮌헨은 19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의 전 소속팀 나폴리와 이적 협상을 마쳤다”며 “김민재와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사용했던 등번호 3번을 계속 달 예정이다. 구단은 김민재에 대해 “키 190㎝에 오른발잡이인 그는 강력한 태클과 제공권, 스피드, 패스 능력 등을 갖춘 완성형 센터백”이라고 소개했다.김민재는 “뮌헨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크다.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라며 “계속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 많은 경기에 나서고 가능한 많은 우승을 달성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현지 언론들은 김민재의 이적료를 5000만 유로(약 715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봉은 1200만 유로(약 17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김민재의 이적료는 종전 한국 선수 중 최고를 기록했던 2015년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3000만 유로(약 426억원)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또 2019년 나카지마 쇼야(일본)가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하며 써냈던 3500만 유로(약 497억원)를 넘어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까지 갈아치우게 됐다.김민재는 지난해 세리A에서 월등한 수비 능력을 앞세워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수비수 부문 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가 하면 시즌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려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렸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김민재는 올 여름 이적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생제르맹 등 유럽 빅클럽들의 영입전이 벌어질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최종 행선지는 뮌헨이었다.뮌헨은 “김민재는 지난 시즌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태클 성공률 63%, 패스 성공률 91% 등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의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등을 언급하며 “한국 팬들은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뮌헨의 프리시즌 일본 투어에 합류해 팀 적응에 나설 전망이다.

# ‘통영 촌놈’ 김민재, 이탈리아에서 우뚝 선 뒤 독일 최고로 향하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18&aid=0005533990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절대 강자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다. 사진=바이에른 뮌헨[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경상남도 통영시의 한 소년은 대표팀 소집을 위해 파주로 향했다. 그는 멍게 배달을 하던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함께 7시간을 달렸다. 사춘기 소년은 승용차를 타던 다른 친구들과 달리 큰 트럭이 부끄러웠다.졸음을 깨기 위해 껌 대신 오징어를 씹었던 그의 아버지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통영의 소년은 그때 다짐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해야겠다.’ “내가 못 하면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볼 거 같았다. 실패라는 게 머릿속에 없었던 거 같다.”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앞만 보고 달린 이유다.19일(한국시간)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이자 독일 분데스리가 절대 강자 뮌헨이 김민재 영입을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까지 5년이며 등번호는 3번을 배정했다.2017년 K리그1 전북현대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김민재는 뛰어난 신체 조건과 빠른 발, 패스 능력 등을 앞세워 바로 주축 선수로 발돋움했다. 이후 김민재는 중국 슈퍼리그를 거쳐 2021년 8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 입단하며 유럽 진출 꿈을 이뤘다. 한 시즌 만에 유럽에서 주목받는 수비수가 된 김민재는 세리에A 나폴리에 입단하며 빅리그에 입성했다.큰 무대에 대한 우려도 잠시 김민재는 이번에도 실력으로 증명했다. 리그 35경기를 포함해 공식 대회 45경기를 뛰며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다. 나폴리도 33년 만에 통산 세 번째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김민재 개인 커리어도 빛났다. 시즌 초반이던 지난해 9월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다. 시즌을 종합해서는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되며 리그 최정상 선수로 인정받았다. 수비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우뚝 선 김민재를 향한 러브콜은 뜨거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 명문 팀 그를 노린다는 보도가 줄지어 나왔다.김민재 영입전의 최종 승자는 뮌헨이었다. 뮌헨은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김민재를 품었다. 5,000만 유로(710억 원)로 알려진 바이아웃 금액을 나폴리에 지불했다.5,000만 유로의 이적료는 아시아 최고 기록이다. 지난 2019년 나카지마 쇼야(29)가 알 두하일(카타르)로 이적하며 세운 3,500만 유로(약 497억 원)의 이적료를 갱신했다. 대한민국 선수로도 2015년 손흥민(31·토트넘 홋스퍼)이 기록한 3,000만 유로(약 426억 원)를 훌쩍 넘어섰다.선수 개인 가치도 크게 치솟았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해 6월 나폴리에 합류하던 김민재의 가치를 1,400만 유로(약 199억 원)로 책정했다. 현재 그의 가치는 6,000만 유로(약 852억 원)로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늘 증명해 왔던 김민재는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다. 최강 뮌헨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자 한다. ‘실패라는 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김민재는 그저 앞을 향해 다시 달릴 뿐이다.

# 이적료 710억에 연봉 170억 원…김민재, '뮌헨맨' 됐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55&aid=0001074724

<앵커>축구 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이자 세계적인 명문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이적료가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최고인 710억 원에 연봉도 170억 원에 달합니다.하성룡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바이에른 뮌헨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와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선수 : 안녕하세요. 바이에른 뮌헨 팬 여러분… 저는 김민재입니다.]이적료는 5천만 유로, 우리 돈 710억 원으로 구단 역대 3위이고, 손흥민이 8년 전 토트넘으로 옮길 때 이적료인 3천만 유로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기록입니다.연봉은 전 소속팀 나폴리 때보다 5배 가까이 오른 170억 원으로 알려졌고, 등번호는 그대로 3번입니다.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11년 연속 리그를 제패한 분데스리가의 절대 강자고, 유럽챔피언스리그에서도 6번이나 우승한 세계적인 명문입니다.[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선수 :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클럽이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클럽에서 저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줬고.]뮌헨은 거액을 투자한 것은 물론이고, 메디컬 테스트를 하러 선수를 부르는 대신 의료팀을 서울로 파견하기까지 하면서 김민재 영입에 지극정성을 들였습니다.지난 시즌 나폴리의 우승을 이끌고 이탈리아 리그 최고 수비수로 뽑힌 김민재에 대해 괴물이 뮌헨에 도착했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투헬/바이에른 뮌헨 감독 : 김민재는 키도 크고 스피드도 빠릅니다. 모든 게 준비된 믿음직한 선수입니다.]김민재는 곧바로 팀에 합류해 새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했고,[그나브리 : 어서 와~ 좋아?]뮌헨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선수 :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것들, 컵대회, 리그 다 우승을 해서 트레블을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김민재는 빠르면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리는 뮌헨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를 전망입니다.(영상편집 : 이정택, CG : 김한길)

# 이렇게 극진한 메디컬테스트라니...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영입 과정 영상으로 공개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241&aid=0003289003

바이에른 뮌헨 구단이 공개한 김민재 메디컬 테스트 영상.   사진=구단 홈페이지 캡처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이 19일(한국시간) 김민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영입 발표와 동시에 구단은 이날 구단 홈페이지에 김민재 소개 영상, 그리고 한국에서 실시했던 김민재의 입단 메디컬 테스트 영상까지 모두 공개했다. 2022~23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에서 뛴 김민재는 입단 첫 시즌에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끈 주전 수비수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2023~24시즌을 앞두고 빅클럽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게 됐다. 바이에른 뮌헨은 구단 역대 이적료 톱 3위에 해당하는 바이아웃 5000만 유로(약 710억원)를 들여 김민재를 영입했다. 이는 한국 선수의 역대 최고 이적료 신기록이기도 하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과 2028년까지 계약했다. 계약 조건만 봐도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모셔가기'에 나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메디컬 테스트 영상을 보면 구단이 김민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접하는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바이에른 뮌헨이 공개한 4분여의 영상에는 비시즌 동안 군사훈련을 받은 김민재를 위해 직접 구단 관계자들이 한국에 날아와서 한국의 한 대형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한국에서 진행됐던 김민재의 메디컬 테스트 모습.    사진=구단 홈페이지 영상 캡처김민재는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받는 동안에도 바이에른 뮌헨 티셔츠를 입은 채 검사를 진행하며, 테스트가 끝난 후 구단 관계자가 김민재에게 유니폼과 구단 마스코트 인형 등 크고 작은 선물 여러 개를 전달하는 모습이 나온다.구단 관계자에게 선물을 받는 김민재.    사진=구단 홈페이지 영상 캡처김민재의 경우 메디컬 테스트가 깐깐하게 선수를 살피는 과정이라기보다 이미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라는 걸 기정사실화 하고 김민재가 가장 편한 상황에서 검사를 진행하면서 환영하는 행사라는 느낌이다. 김민재 역시 바이에른 뮌헨 관계자들의 진심어린 태도에 진심으로 화답했다. 김민재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바이에른 뮌헨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지다' '모든 게 좋아요' 같은 간단한 독일어를 미리 연습한 듯 적절하게 사용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영상 마지막에는 바이에른 뮌헨 팬들을 향해 직접 '손하트'를 만들어 인사하는 영상을 찍는 모습도 담겼다.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 보내는 영상 인사를 촬영하는 김민재.   사진=구단 홈페이지 영상 캡처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해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프리시즌 매치 맨체스터 시티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은경 기자

#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 찾은 김민재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3&aid=0011982670

[로타흐 에게른=AP/뉴시스] 김민재가 18일(현지시각) 독일 로타흐 에게른에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에 도착하고 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2028년까지 5년 계약하며 등번호 3번으로 뛰게 된다. 이적료는 5000만 유로(약 710억 원)로 역대 한국 선수 최고의 이적료다. 2023.07.19.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바이에른 뮌헨 '감동 선물'…김민재 가족까지도 챙겼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241&aid=0003288971

김민재의 아내 안지민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선물. 사진=SNS 캡처19일 뮌헨에 합류한 김민재. 그는 뮌헨에서도 등번호 3을 배정받았다. 사진=뮌헨 홈페이지19일 뮌헨에 합류한 김민재. 그는 뮌헨에서도 등번호 3을 배정받았다. 사진=뮌헨 홈페이지“FC 바이에른의 가족이 된 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바이에른 뮌헨 구단이 김민재의 아내와 딸을 위해 감동적인 선물을 선사했다. 딸 주아 양을 위한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 등 구단 물품과 함께 편지를 전한 것이다. 김민재의 아내 안지민 씨는 1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 구단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김민재의 등번호이기도 한 3번과 주아 양의 이름이 마킹된 유니폼과 구단 마스코트 인형 등 구단 굿즈들이 담겼다.여기에 편지도 더해졌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민재, 사랑하는 지민, 사랑하는 주아, 뮌헨과 FC바이에른의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김민재의 영입을 공식 확정됨과 동시에 김민재 아내와 딸도 한 가족으로 환영한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챙긴 구단의 세심함에 김민재 역시도 뿌듯할 만한 일이었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세심한 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김민재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날, 바이에른 뮌헨 구단은 김민재를 독일 뮌헨으로 부르는 대신 구단 관계자들을 한국에 보냈다. 영입 절차 마무리에 필요한 메디컬 테스트 절차였다. 김민재가 시즌을 마친 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만큼 곧바로 장거리를 이동하기보다 국내에 머무르며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당초 뮌헨으로도 이동하지 않고 아시아 투어 때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될 정도로 김민재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배려가 이어졌다.대신 김민재는 아시아 투어 합류 대신 직접 뮌헨으로 이동해 이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뮌헨에서 직접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 등번호는 3번이다. 현지에서는 김민재가 최대 1200만 유로(약 1200만 유로)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적료는 바이아웃(최소 이적료)에 해당하는 5000만 유로(약 711억원)다. 아시아 선수 이적료는 역대 최고다. 만약 바이아웃이 없었다면 이적료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더 올랐을 것이라는 게 현지 설명이다. 19일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역시 그의 이적을 반겼다. 사진=분데스리가 SNS19일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구단 SNS에 올라온 김민재의 모습. 사진=뮌헨 SNS19일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구단 SNS에 올라온 김민재의 모습. 사진=뮌헨 SNS지난 시즌 나폴리에 입단하며 처음 유럽 빅리그에 입성한 그는 단번에 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했다. 시즌 내내 꾸준했던 활약은 나폴리를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A 정상으로 이끌었다.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달의 선수상은 물론 단 한 명의 수비수에게만 돌아가는 최우수 수비수 영예까지 안았다.이같은 활약에 유럽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쇄도했다. 겨우 5000만 유로의 이적료로 김민재를 영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영입 전쟁이 펼쳐졌다. 영입전에서 가장 앞서 있었던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 7월 1일에 바로 영입이 발표될 것이라는 현지 전망까지도 나왔다. 다만 맨유는 구단 인수 문제 등과 맞물려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다. 이 틈을 바이에른 뮌헨이 놓치지 않았다. 김민재에게 장기 계약과 많은 연봉을 약속하며 김민재 마음을 잡았다. 김민재 역시도 유럽 최고의 구단 중 한 팀인 바이에른 뮌헨 러브콜을 고민할 여지가 없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을 앞세운 사우디 리그나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막대한 연봉 오퍼도, 뒤늦게 다시 하이재킹을 시도한 맨유 러브콜도 단칼에 거절했다. 오랜 이적사가는 결국 김민재의 뮌헨 출국과 ‘오피셜’을 통해 공식화됐다. 19일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뮌헨 CEO(왼쪽)와 김민재의 모습. 김민재는 뮌헨과 202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사진=뮌헨 SNS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을 맺었다.(사진=바이에른 뮌헨)김민재 이적 후 바이에른 뮌헨의 새 시즌 예상 라인업. 김민재는 더 리흐트와 함께 중앙 수비 주전을 꿰찰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김민재 이적 후 바이에른 뮌헨의 새 시즌 예상 라인업. 김민재는 백4가 아닌 백3에서도 주전 자리를 꿰찰 전망이다. 사진=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바이에른 뮌헨은 유럽에서도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데다, 매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등 국내대회는 물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등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유럽 내 위상을 돌아보면, 김민재 스스로 다른 리그 이적을 원하지 않는 이상 오랫동안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수비수로서 전성기에 접어드는 나이인 만큼 최대한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현지에선 김민재가 단번에 바이에른 뮌헨 주전 자리를 꿰찰 것으로 보고 있다.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도 바이에른 뮌헨의 새 시즌 예상 선발 라인업을 전망하면서 김민재의 선발 출전을 전망했다. 수비 전술의 변화와 상관없이 굳건하게 바이에른 뮌헨 수비진을 지킬 것이라는 게 현지 전망이다. 최근 한 시즌마다 팀을 옮겨야 했던 김민재는 이번 이적으로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게 됐다. 국내 실업축구 무대를 시작으로 K리그와 중국, 튀르키예, 이탈리아를 거쳐 다다른 행선지다.김명석 기자

# 수원공고·전북…김민재 뮌헨행에 韓 7개 팀 함박 웃음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9&aid=0005161153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 [사진=바이에른 뮌헨]가야초등학교, 남해해성중학교, 연초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주 한수원 축구단, 전북 현대.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돈방석에 앉게 된 국내 7개 팀이다. 국제축구연맹(FIFA)가 정한 연대기여금을 받게 된 7개 팀은 함박 웃음을 짓게 됐다.바이에른 뮌헨은 19일(한국시간) “2028년 6월 30일까지 김민재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나폴리 시절 달았던 등번호 3번을 부여받은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축구팀으로 꼽히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새출발을 하게 됐다.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지급한 이적료는 5000만유로(약 710억원)로 알려졌다. 김민재의 추정 이적료는 아시아 축구 선수 최고액에 해당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유럽 현지 매체들은 김민재의 연봉을 세후 1200만유로(약 170억원)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받았던 250유로와 비교하면 약 4.8배 뛰어올랐다.김민재의 이적료와 연봉만큼 관심을 받는 건 모교와 출신 클럽에 돌아가는 연대기여금이다. FIFA는 선수의 성장과 육성에 기여한 학교와 클럽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연대기여금 규정을 2001년 만들었다. 연대기여금 규정에 따르면 만 12세부터 15세까지 뛰었던 팀은 각각 0.25%를 수령하고 만 16세~23세까지는 0.5%를 받는다.김민재의 모교 중 가장 많은 연대기여금을 수령하는 건 수원공업고등학교다. 3년간 수원공업고등학교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만큼 75만유로(약 10억6500만원)를 연대기여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연세대학교와 가야초등학교의 경우 각각 5억원과 1억5000만원이 넘는 연대기여금으로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나폴리 이적 때에도 연대기여금을 받았던 전북은 50만유로(약 7억 1000만원)를 다시 한 번 챙기게 됐다.

# 바이에른 뮌헨 이적 김민재, 나폴리 팬들에게 작별 인사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1&aid=0014076168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독일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서울=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과 5년간 계약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19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 수비수로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뛴 김민재와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했다"며 "김민재의 등번호는 3번"이라고 발표했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공식 입단. 2023.7.19 [바이에른 뮌헨 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2022-2023시즌 몸담았던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김민재는 1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나폴리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 덕에 디에고 마라도나가 뛰었던 시절 이후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그는 "나폴리 구단과 팀 동료,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제가 어디로 가든 나폴리를 기억하고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2022-2023시즌부터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나폴리에서 뛴 김민재는 팀의 주축 수비수로 활약하며 나폴리가 마라도나가 뛰었던 1990년 이후 33년 만에 리그 정상에 복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민재는 2023-2024시즌 개막을 앞둔 19일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을 맺었다. 주초에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재는 독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일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에 도착했으며 이날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영입 공식 발표까지 이어졌다.emailid@yna.co.kr

# 뮌헨이 본 '괴물' 김민재…"태클에 패스도 좋은 완성형 센터백"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1&aid=0014076420

뮌헨 입성한 김민재[A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태클이 강하고 빌드업 플레이도 뛰어난 완성형 센터백." 독일 프로축구 '절대 1강' 바이에른 뮌헨이 한축 축구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26)의 강점을 소개하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뮌헨은 19일(한국시간) 김민재 영입을 공식 발표하면서 김민재의 장점과 축구선수로서 성장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전했다. 뮌헨은 "페네르바체(독일)와 나폴리(이탈리아)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에 이름을 알린 김민재는 키 190㎝에 오른발잡이로 강력한 태클과 제공권, 빠른 스피드와 패스 능력이 두루 좋은 완성형 센터백"이라고 소개했다.훈련하는 김민재[AFP=연합뉴스] 이어 김민재가 나폴리의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에 이바지한 지난 시즌 보여준 '우월한 수비'를 여러 수치를 근거로 설명했다. 뮌헨은 "김민재는 공식전 49경기 중 45경기에 출전했으며,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발 출전이었다"면서 "태클(63%)과 패스(91%) 성공률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전진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한 선수(1천57회)이자 세 번째로 패스(2천547회)를 많이 성공시킨 선수"라고 전했다. 뮌헨은 김민재의 K리그 활약상,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의 16강 진출에 기여한 점도 언급하면서 "김민재의 정신력과 강력한 신체적 특성을 두고 한국 팬들은 '괴물'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전했다.뮌헨 훈련장의 김민재[AFP=연합뉴스] 그러면서 "(뮌헨 팬들은) 도전정신이 강하고 지능적으로 빌드업할 줄 아는 다재다능한 센터백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고 장담했다. 뮌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김민재와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뮌헨이 나폴리에 지급한 바이아웃(이적 보장 최소 이적료) 금액은 5천만 유로(약 71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은 1천200만 유로(약 172억원) 수준이다. 한편, 김민재는 입단 발표와 함께 선수단 훈련에 합류했다. 고정 사이클 등으로 몸을 풀며 주전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다요 우파메카노, 미드필더 요주아 키미히, 골키퍼 얀 조머 등과 환담을 했다. ahs@yna.co.kr

# “김민재는 흥미로운 선수” 뮌헨 대표도 영입 언급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5&aid=0001624570

“우리팀 오길 원한다” 발언며칠 내 입단 가능성 커져사진=KFA제공얀크리스티안 드레센 바이에른 뮌헨(독일) 대표이사가 김민재(사진)를 직접 언급하며 입단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드레센 대표는 17일(현지시간) 하파엘 게레이루, 콘라드 라이머의 입단 기자회견에서 “김민재는 흥미로운 선수다. 당연히 우리 팀에 오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가 일찌감치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했음에도 뮌헨 이적에 대한 공식 발표가 늦어지자 관련해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드레센 대표는 “아직은 (영입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며칠 내로 (입단) 발표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사실상 김민재의 뮌헨 입단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 구단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입단이 완료되지 않은 선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다.앞서 투헬 감독은 1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협상 때문에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누가 오는지는 큰 비밀이 아니다. 새로운 선수가 에르난데스의 자리를 충분히 메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민재의 영입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왔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뮌헨은 수비수 뤼카 에르난데스를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시킨 뒤 대체자로 김민재를 낙점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김민재의 소속팀 나폴리의 행보 역시 이적설에 불을 당겼다. 나폴리는 지난 15일 프리시즌 참가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김민재의 이름은 없었다. 지난 시즌 나폴리의 33년 만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핵심 멤버가 명단에서 빠졌다는 건 결별 외에 다른 뜻으로 풀이하기 어렵다.나폴리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김민재에 대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했다. 이 기간에 김민재의 최소 이적료를 맞추는 구단이 나오면 이적이 완료된다.

# 바이에른 뮌헨 대표이사, 김민재 직접 언급…"며칠 내 입단하길"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1&aid=0014073912

수비하는 김민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우루과이와의 축구 대표팀 평가전. 김민재가 상대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 2023.3.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가' 바이에른 뮌헨의 얀크리스티안 드레센 대표이사가 한국 국가대표팀 '수비의 핵' 김민재를 언급하며 얼른 입단이 확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드레센 대표는 17일(현지시간) 하파엘 게레이루, 콘라드 라이머의 입단 기자회견에 김민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드레센 대표는 "김민재는 흥미로운 선수다. 당연히 우리 팀에 오길 원한다"며 "하지만 아직은 (영입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며칠 내 (입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레센 대표의 발언처럼 김민재는 뮌헨 입단이 유력하다. 지난 15일 김민재의 소속팀 나폴리(이탈리아)는 홈페이지에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첫 번째 프리 시즌 참가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 김민재의 이름은 빠졌다. 김민재와 완전하게 결별했다는 신호다. 나폴리는 1일부터 15일까지 김민재에 대한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했다. 이 기간에 김민재의 최소 이적료를 맞추는 구단이 나오면 이적이 완료된다. 이탈리아 매체들은 이에 대해 "김민재가 나폴리 프리시즌 명단에서 제외됐다"라며 "뮌헨이 김민재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금액인 5천만 유로를 나폴리에 송금했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뮌헨이 김민재의 새로운 둥지가 된다. 지난해 여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김민재는 중앙 수비수로 맹활약하면서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민재는 2022-2023시즌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로 뽑혔고, 빅클럽들의 영입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몸값도 치솟았다. 유럽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지난 3월 김민재의 시장가치를 5천만 유로로 평가했다가 지난달 새로 산정하며 6천만 유로(약 853억원)로 상향했을 정도다.얀크리스티안 드레센 바이에른 뮌헨 대표이사[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ual07@yna.co.kr